

특별재난지역 선포 속도낸다

제주지역 55일째 가뭄으로 소득감소액 1608억도, 오늘 청와대 등 방문 대책 세부지원 협의 국비 26억 및 향후 가뭄대응 사업비도 요청

제주지역에 유례없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속도를 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2면

제주자치도는 지난 20일 소방방재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문을 정식 전달한데 이어 22일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등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를 비롯 중장기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 건

의안 전달 및 가뭄대책 세부사업의 협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가뭄이 심각한 제주지역에 최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시함에 따라 조인된 동 경제수석과 우근민 도지사간 긴급 전화통화가 이뤄지면서 급진전됐다. 전화통화에서 조 경제수석은 우 지사에게 대통령의 가뭄 지원 지시를 전달했고 이에 우 지사는 제주도의 건의사항을 정리·건의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와 별도로 전천후 과학영농 사업비 26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또 앞으로도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가뭄 등 이상 기후현상이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항구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농업용수의 개발·이용·관리 통합 구축사업이 정부지원사업에 반영돼 2014년부터 시범지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 100억원중 80억원과 상습 한해발생

대처를 위해 현재 개발중인 농업용 저수지 4개소(성읍지구, 웅포지구, 함덕지구, 서림지구)도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긴급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가뭄이 기상관측 사상 최장 기간인 55일째로 접어들고 폭염이 39일째 이어지면서 7개 주요 작물의 예상 소득감소액을 1608억4300만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제주자치도가 정부에 근거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집계한 추정치다. 작목별로는 노지감귤이 1020억원, 당근 384억1200만원, 콩 147억9000만원, 수박 41억5500만원, 참깨 10억9000만원, 땅콩 2억5500만원, 발매가 1억4100만원 등이다. 오은지기자



해외 대학생들 해녀가 되다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 주관하는 '2013 교류대학 학생 초청 단기 한국어·한국문화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의 대학생들이 21일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해녀학교를 찾아 해녀체험을 벌이고 있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한국어 수업, 한국문화 교육, 세계유산 답사 등으로 진행된다. 강경민기자

유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이 다수의 세계농업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노하우를 배우고 이를 농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워크숍에는 일본 유엔대학의 타케우치 가즈히코 상급 부학장 등 농업유산 관련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향후 제주발담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이 협의될 전망이다. 특히 타케우치 교수를 비롯 유엔대학의 리양 교수, 중국과학원 지리과학 자원연구소의 민칭원 박사 등 세계농업유산 등재 심의위원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어 제주발담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기회가 될 전망이다.

타케우치 교수는 지난 5월 일본 아사카와현에서 열린 세계농업유산 국제회의 때 한라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제주발담에 숲과 농업문화, 경관, 자연 생태 등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세트'로 접근해 보완한다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가능성이 있으며 농업유산의 종합적인 모델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강시영기자

제주발담 가치 알릴 절호의 기회

세계농업유산 한중일 워크숍 26일 제주서 개최 등재 심의위원 등 석학 다수 참가... 현장견학도

제주발담 농업시스템을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노력중인 가운데 농업유산 관련 대규모 국제회의

가 제주에서 열린다. 특히 이 회의에는 세계농업유산 등재 심의위원으로 활동중인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가, 제주발담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어서 제주발담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업유산 보존관리 및 연계협력'을 위한 한·중·일 워크숍'이 오는 26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워크숍을 전후해서는 28일까지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추진중인 제주발담과 완도군 청산도 일대 현장 견학도 실시된다. 이번 워크숍은 아직 세계농업

집중진단 보물섬 제주, 인구 60만시대의 과제와 전략

성공 정착·행복한 삶·주민과 상생

1. 인구변화 추세와 의미
2. 정착주민의 분야별 실태
3. 주요정책과 문제점
4. 정주환경 개선전략

제주자치도는 정착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정책은 성공적 정착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제주도민들과 상생·협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계층별 핵심과제-제주에 이주해 온 귀농·귀촌 정착주민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문제는 농지 구입이나 임대, 그리고 농사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영농활동 방법과 문제 해결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다. 또 동네, 이웃, 마을 주민 등 지역사회의 체계적 지원도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중심에서 자기역량을 개발해 스스로 자립,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일자리와 취업을 해소하고 다문화 가족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들에게는 제주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고 정규적으로 컨설팅 서비스

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제주로 이주해 오는 청·장년층을 위해서는 고용정책과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아직은 젊고 건강한 연령대여서 취업이나 사회참여 희망자에게 걸맞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들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 정보, 경력을 제주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고령자의 경우, 이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예방적 건

제주자치도는 다양한 연령과 분야의 이주 대상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단지 조성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주거와 교통, 교육, 의료 등의 종합서비스가 충족될 수 있는 단지를 뜻한다.

제주 귀농인의 집 개설도 거론되고 있다. 정착주민이 제주로 귀농·귀촌 이주해 오기 전에 일정한 기간 제주에 머물면서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지역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정착주민들의 지식과 정보, 기술, 경력 등을 고려해 제주발전을

계층별·귀농 등 이주 원인별 핵심과제 분석도 총괄담당부서·정착주민지원센터 신설 이주자 단지 조성·귀농인의집 개설 등 검토

강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과제다.

▶주요 전략 과제-우선 도청에 총괄 담당 부서 신설이 요구된다. 도청 내에 (가칭)정착주민지원과를 신설해 (가칭)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와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행정시와 읍면동사무소에도 정착주민지원창구를 개설해 도청의 정착주민지원과와 연계하는 구상이다.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제주자치도 총괄부서가 중심이 돼 산발발전, 정책 모니터링, 사회봉사, 공무원 역량강화, 보건·의료발전 등의 분야에서 정착주민들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최종 검토를 거쳐 정착주민들이 제주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끝> 강시영기자 sykang@ihalla.com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참여하세요"

조직위, 전시기관·단체·개인 모집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현해남·양광순)는 오는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2013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pre-EXPO)에 참여할 전시 참여 기관·단체 등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달 2일까지 1차로 154개소

의 감귤산업 분야 전시 부스에 참여할 전국 감귤산업 관련 기업·단체와 개인을 모집한다.

전시모집 분야는 감귤생산자재, 감귤유통자재, 감귤농기계, 감귤가공 식품·제품, 농업서비스, 감귤재배 신기술, 감귤바이오테크, 친환경유기농자재, 감귤브랜드 홍보 및 수공예품 전시판매 등

이다. 선정은 배점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서로 참가자를 확정하며 감귤관련 특허를 소지하거나 감귤산업 발전 공헌 실적이 높은 업체(단체) 및 개인에게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참가신청은 박람회 공식홈페이지(www.citrus-expo.com) 또는 조직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직위원회는 감귤산업전시관 외에 농업기계·농업단체·체험전시관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760-3265-8. 한국현지자

중심을 잡는 언론

연합뉴스는 균형잡힌 시각으로 대한민국 뉴스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취재망을 보유한 연합뉴스는

국내외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합니다.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연합뉴스 | news | 연합인포맥스